

교양스키수업에 참가하는 대학생들의 스포츠자신감과 운동열정 및 재 참여의도의 관계

장익영, 안찬우
오타고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The Relationship between Sport Confidence, Exercise Passion and Re-Participation Intention of Collegiate Students Participating in the Snow Ski-Class

Ik-Young Chang, Chan-Woo Ahn
University of Otago, Daegu Hanny University

요 약 이 연구는 교양스키수업에 참가하는 대학생들의 스포츠 자신감과 운동열정 및 재 참여의도와 관계를 구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양스키수업에 수강신청을 한 대학생들을 모집단으로 설정하여 4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설문지의 신뢰도와 타당도검사, 기술통계분석과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AMOS 18.0을 이용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교양스키수업에 참가하는 대학생들의 스포츠 자신감은 운동열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교양스키수업에 참가하는 대학생들의 스포츠 자신감은 재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친다. 셋째, 교양스키수업에 참가하는 대학생들의 운동 열정은 재 참여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넷째, 교양스키수업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의 스포츠 자신감, 운동열정 및 재 참여의도 사이에는 인과적 관계가 있다.

주제어 : 교양스키수업, 대학생, 스포츠자신감, 운동열정, 재 참여의도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sport confidence, exercise passion and re-participation intention of collegiate students participating in snow-ski class. The subjects for this study were 416 collegiate students who signed up for snow-ski class as a university curriculum.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test of the questionnaire were conducted by using SPSS & AMOS Window 18.0 program; the results of descriptive analysis, factor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structural equation model are as follows; First, sport confidence of collegiate students in ski-class affects their exercise passion. Second, sport confidence of collegiate students in ski-class has influence on their re-participation intention. Third, collegiate students' exercise passion in ski-class affects their re-participation intention. Lastly there is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sport confidence, exercise passion and re-participation intention of collegiate students in the snow-ski class.

Key Words : snow ski-class, collegiate student, sport confidence, exercise passion, re-participation intention

Received 2 March 2016, Revised 19 April 2016
Accepted 20 May 2016, Published 28 May 2016
Corresponding Author: Chan Woo Ahn(Daegu Hanny University)
Email: acw@dhu.ac.kr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SSN: 1738-1916

1. 서론

1960년 이후 한국사회에서 나타난 급격한 산업화와 현대화는 사람들에게 여유와 편리함은 물론 더 나은 삶에 공헌해 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가구소득의 증가와 주 5일 근무제의 시행으로 여가시간의 증대라는 환경의 변화를 수반하였다. 한국문화관광원에 따르면 2014년 만 15세 이상 우리나라 국민들의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평일 3.6시간, 휴일 5.8시간으로 2012년 보다 각각 평일 0.3시간, 휴일 0.7시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

이와 같은 여가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여가에 대한 사회적 태도나 인식 역시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여가에 대한 개념이 노동의 개념과 대비시켜 휴식, 스트레스 해소, 생산성 향상 등과 같은 단순한 휴식을 취하는 개념에 그쳤으나, 최근에는 스트레스 해소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활동으로 단순한 휴식을 벗어나 레저스포츠, 여행 등의 적극적 참여활동을 추구하고 있다[2,3]. 여가에 대한 인식은 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여가 행위는 단순한 휴식 즉, TV시청, 게임, 휴식 등 소극적 여가활동에 그치고 있다. 즉,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삶의 질 향상에도 불구하고 여가시간이나 여가활동 행위는 소극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현대인들이 신체능력감소로 인한 신체적 변화, 스트레스나 불안, 우울과 같은 심리적 변화 그리고 사회적응 및 대인관계와 같은 사회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4].

이러한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가 및 스포츠학문 분야에서는 여가 스포츠활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3]. 무엇보다도 여가스포츠 활동은 건강유지 및 증진과 더불어 행복추구, 삶의 질적 향상에 많은 도움을 준다.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신체활동은 현대인이 가장 쉽게 노출되기 쉬운 각종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결과적으로 개개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5].

이러한 여가 스포츠활동의 중요성은 사회를 준비하는 대학생들에게 있어서도 매우 가치 있는 활동으로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여가 스포츠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한 대학들도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양체육 수업을 제공하고 있다. 사회가 변화하면서 교양수업도 변화되어져 왔다. 1990년대 이전에 교양체육의 목적은 신체활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는데 있었다면 최근에는 개인의 신체적성과 평생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돕는 교양체육으로 변화하고 있다. 즉, 여가의 사회적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트렌드에 적합하도록 교양체육 또한 변화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졸업 후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배우도록 돕고 있다[6,7,8]. 이와같은 다양한 대학 교양체육 수업 중 동계계절학기에 실시되는 스키, 스노우보드 수업은 자연친화적인 수업으로서 복잡한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누구나 쉽게 배우고 즐길 수 있는 동계스포츠의 꽃이라 불리운다.

1975년 용평에 국내 처음으로 스키장이 건설되고 1980년대 이후 점차 대중화가 되면서 스키는 더 이상 상류계층만이 즐기는 스포츠가 아닌 대중화된 동계스포츠로 자리 잡고 있다. 스키는 겨울철 신체발달의 효과뿐만 아니라 설원에서 즐기는 야외형 레저스포츠로 짜릿한 재미와 흥미를 제공하며 그에 따른 심리적 만족감과 한계극복에 대한 도전감을 주는 이점이 있다[9]. 이러한 이점들과 대중들의 인식의 변화로 스키의 수효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스키장 경영협회에 따르면, 연도별 스키장 슬로프 이용객이 1999~2000시즌에는 3057만 명에서 2006~2007시즌에는 6033만 명으로 거의 두 배가 증가하였으며, 2011~2012시즌에는 6863만 명이 이용하여 지금까지 가장 많은 이용객 현황을 보였다. 스키장 슬로프 이용객의 변화뿐만 아니라 시설의 증가에도 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10]. 무엇보다도 스키나 스노우보드는 20대에서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20대의 72.4%가 스키나 스노우보드를 배우고 싶다고 보고하고 있다[6]. 이와 같이 젊은 세대에서 널리 선호되면서 거의 모든 대학에서 학생들의 교양체육 수업으로 스키나 스노우보드 수업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졸업 후 여가 스포츠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교양체육 수업에 참가하는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스포츠활동에 대한 자신감은 그들의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스포츠자신감이란 일상생활 속에서 얻어지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 각 개인이 지각하는 주관적인 안녕이며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행복감 등이며[11], Vealey는 이를 스포츠 상황에서 자신이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믿음과 확신이라고 정의하였다[12] 특히 여가 스포츠활동에서 자신감은 여가 스

스포츠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인들의 신체적 운동수행능력에 대한 성취감을 말하지만, 신체적인 자신감은 심리적 특성이거나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어 여가 스포츠활동에 참여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다[13].

특히 스포츠 자신감은 운동에 더욱 더 열정적으로 참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Peterson 과 Seligman에 따르면 열정이란 자신에 대한 확신과 믿음과 같은 자신감에 의해 성취감을 촉진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14]. 무엇보다도 열정은 사람들이 자신이 좋아하고 가치를 발견한 활동들에 대하여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려는 강력한 성향이라고 하였다[15,16]. 이와 같은 열정은 개인의 정체성을 어떻게 내면화시키는지에 따라 조화(harmonious)열정과 강박(obsessive)열정으로 구분된다. 조화열정은 유연한 참여와 과제에 대한 집중과 긍정적인 심리상태를 촉진시켜 동기와 활력을 유발하는 반면, 강박열정은 참여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인하여 통제가 강요되어 과제에 대한 집중력을 방해하여 불편한 심리상태를 초래한다[17]. 이러한 열정은 개인의 스포츠활동에 영향을 주어 몰입의 정도를 심화시키며, 안정적으로 지속적인 스포츠 활동참여를 가능하게 한다. 즉, 열정적인 참여는 추후 스포츠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열정이 높은 스포츠 참여자들은 스포츠활동에 재 참여하려는 의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재참여 의도는 스포츠 활동 후에 지속적인 활동에 대한 참여의 여부를 말하는 것으로, 지속적인 운동참여는 건강, 체력, 스트레스 해소 및 즐거움 제공, 여가만족과 생활만족, 자아실현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운동참가와와는 그 의미가 다르며 중요성 또한 많은 차이가 있다[18]. 무엇보다도 재 참여의도는 현대인들에게 스포츠에 대한 내적동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스포츠활동 시 어떠한 경험을 하느냐는 스포츠활동의 재 참여의도에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스포츠활동에 참가 할 때 자신감의 수준이나 열정이 어떻게 스포츠의 재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교양스키수업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대상이 대학생들이며 전문적으로 스포츠를 수행하는 학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참여동기나 몰입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춰왔으며 [6,19,20,21] 더불어 참가자들의 참여만족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22,23,24]. 다시 말하면 교양스키 수업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스포츠 자신감, 운동열정 그리고 재 참여의도 간의 인과성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교양스키수업에 참가하는 대학생들의 스포츠자신감, 운동열정 그리고 재 참여의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구명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교양스키수업에 참가하는 대학생들의 스포츠자신감과 운동열정은 관계가 있는가?
- 둘째, 교양스키수업에 참가하는 대학생들의 스포츠자신감과 재 참여의도는 관계가 있는가?
- 셋째, 교양스키수업에 참가하는 대학생들의 운동열정과 재 참여의도는 관계가 있는가?
- 넷째, 교양스키수업에 참가하는 대학생들의 스포츠자신감, 운동열정 및 재 참여의도에는 인과관계는 있는가?

2. 연구 방법

2.1 연구대상

이 연구는 교양스키수업에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에 참가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집단으로 선정하였다. 편의추출표집법(convenience sampling method)을 이용하여 430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설문 내용에 불성실하게 응답한 것으로 판단된 14명의 자료를 제외한 416명의 자료를 실제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General feature of subject of study

Section		Frequency	Percentage(%)
Gender	Female	229	55.0
	Male	187	45.0
Major	P.E.	219	52.6
	Non P.E.	197	47.4
Age	under 20	85	20.4
	21-22	151	36.3
	23-24	130	31.3
	over 25	50	12.0
Participation event	Ski	331	79.6
	Snowboard	85	20.4
Previous experience	Yes	264	63.5
	No	152	36.5

2.2 조사도구

이 연구의 조사도구는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항목 5문항, 스포츠자신감 15 문항, 운동열정 14문항, 재 참가의도 3문항 등 총 3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변인들의 조작적 정의와 구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교양스키수업에 참가하는 대학생의 스포츠자신감은 Vealey가 개발하고 김원배가 한국어로 번안하여 사용한 설문지를 이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12,25]. 구체적으로 스포츠자신감은 능력 입증, 사회적지지, 코치 지도력 그리고 신체적/정신적 준비의 4가지 하위요인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측정하였다.

다음으로 열정은 Vallerand 등이 개발하고 유진, 정꽃님이 한국어로 번안한 운동열정 설문지를 이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15,17]. 열정은 강박열정과 조화열정 2개의 하위요인 14문항으로 구성 되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마지막으로 스키 에 설문지는 조보천, 안민주가 구성한 재 참여의도 설문지를 연구의 특성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26,27]. 문항은 5점 리커트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측정하였다.

2.3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이 연구의 조사도구에 대한 타당도를 검사하기 위하여 스포츠사회심리학을 전공한 교수 3인의 자문을 통하여 설문지 내용을 검토한 후 내용타당도와 적합성 여부를 논의하였고 논의된 사항들을 수정 및 보완하여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조사도구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방식으로는 주성분분석을 그리고 요인회전방법으로 직각 회전방식을 이용하였다. 요인추출 기준은 초기 고유값 1.0이상으로 하였다.

먼저, <Table 2>은 스포츠자신감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이다. 스포츠자신감에 대한 15문항의 요인분석 결과 능력입증, 사회적지지, 코치 지도력 그리고 신체적/정신적 준비의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먼저 능력입

증의 요인부하량은 .897-.941, 사회적지지의 요인부하량은 .874-.932, 코치지도력의 요인부하량은 .798-.855, 신체적/정신적 준비의 요인부하량은 .821-.774로써 타당하게 측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포츠자신감에 대한 신뢰도 값은 .816-.912로 나타나 신뢰할 수 있는 설문지로 나타났다.

<Table 2>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sport confidence

Question	ability	support	coach	preparation
item 6	.941	.311	.190	.153
item 13	.928	.263	.160	.274
item 1	.902	.345	.175	.092
item 10	.897	.185	.204	.375
item 7	.325	.932	.314	.142
item 9	.265	.918	.286	.222
item 4	.427	.907	.331	.103
item 14	.263	.874	.285	.328
item 2	.264	.285	.855	.544
item 12	.282	.309	.832	.520
item 3	.389	.248	.808	.482
item 15	.149	.257	.798	.153
item 8	.220	.135	.220	.821
item 5	.231	.394	.251	.798
item 11	.348	.121	.031	.774
eigenvalue	3.469	3.440	2.713	1.978
variance(%)	23.124	22.933	18.085	13.186
accumulation(%)	23.124	46.057	64.143	77.328
Cronbach'α	.816	.912	.898	.845
KMO=.942 X ² =4908.755 Sig=.000				

<Table 3>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exercise passion

Question	harmonious	obsessive
item 12	.940	.103
item 11	.922	.176
item 13	.922	.113
item 10	.921	.201
item 9	.861	.296
item 8	.860	.206
item 14	.736	.214
item 1	.028	.871
item 3	.003	.852
item 2	.196	.850
item 5	.432	.703
item 6	.231	.701
item 4	.393	.698
eigenvalue	5.889	3.951
variance(%)	45.302	30.392
accumulation(%)	45.302	75.693
Cronbach'α	.962	.893
KMO=.925 X ² =5289.877 Sig=.000		

<Table 3>의 결과를 살펴보면, 운동열정에 대한 14문항 중 요인적재 값이 낮게 나타난 1문항(조화 7번)을 제외한 총 13문항의 요인분석 결과 조화열정과 강박열정 2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먼저 조화열정의 요인부하량이 .736-.940, 강박열정의 요인부하량이 .698-.871로 나타나 타당한 것으로 측정되었다. 열정에 대한 신뢰도 값은 .893-.962로 나타나 신뢰할 만한 설문지로 나타났다.

<Table 4>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re-participation intention

Question	re-participation intention
item	.922
item	.893
item	.885
eigenvalue	2.432
variance(%)	81.051
accumulation(%)	81.051
Cronbach'α	.881
KMO=.733 X ² =687.745 Sig=.000	

<Table 4>의 결과를 살펴보면, 스키 재 참여의도에 대한 3문항의 요인분석 결과 1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요인부하량은 .885-.922로써 타당하게 측정되었으며 신뢰도 값은 .881로 나타나 신뢰할 만한 설문지로 나타났다.

2.4 확인적 요인분석

이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통해 검증된 측정항목에 대해서 변인별로 측정모형을 도출하기 위해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합도 평가기준은 χ^2 값과 적합도 지수인 GFI($\geq .90$), NFI($\geq .90$), CFI($\geq .90$), RMSEA($\leq .08$)을 적용하였다[28]. 다음의 <Table 5>는 각 구성개념의 적합도가 전반적으로 평가기준을 만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by study units

	χ^2	GFI	NFI	CFI	RMSEA
Sport confidence	901.131	.974	.919	.932	.053
Exercise passion	570.030	.927	.915	.904	.038
Re-participation intention	42.296	.946	.932	.941	.024

2.5 조사절차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해당 스키수업을 하는 스키장을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의 목적과 기입 방법을 설명해준 뒤, 학생들 스스로 자기평가기입법(self administration method)으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여 회수하였다.

2.6 자료처리방법

이 연구의 자료수집 방법에 의하여 회수된 설문지의 응답결과는 우선 이중기입 또는 무기입 등으로 응답에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응답자료를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모든 자료는 컴퓨터에 개별 입력(Coding)시키고, SPSS/PC⁺ 18.0 Version과 Amos/PC⁺ 18.0 Version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의 목적에 따라 전산처리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통계의 방법은 기술통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상관분석, 그리고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실시하여 검증하였다.

3. 결과

3.1 변인간의 상관관계

<Table 6>는 교양스키수업에 참가하는 대학생의 스포츠자심감과 운동열정 및 재 참여의도 관련 변인간의 판별타당성의 충족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먼저 구성개념에 대한 평균분산(AVE)이 구성개념의 상관계수의 제곱값보다 크면 판별타당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Table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가장 큰 상관계수의 제곱값은 .241이며, 가장 작은 AVE는 .501로 이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들은 판별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개념신뢰도 값 역시 .711에서 .869로 나타나 요인개념에 대한 타당성이 있다. 관련 변인간의 상관관계(r)는 .254에서 .491이었으며 변인들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상관관계수의 값이 .85를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Kline의 기준에 따라 판별타당성이 확보되었다[29]. 더불어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의 기준치인 .80보다 모든 변인이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28].

<Table 6>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variables

	1	2	3	4	5	6	7	AVE	개념신뢰도
1. ability	1.00							.601	.869
2. support	.437**	1.00						.511	.731
3. coach	.412**	.415**	1.00					.557	.789
4. preparation	.405**	.389**	.395**	1.00				.515	.746
5. harmonious	.381**	.354**	.354**	.491**	1.00			.501	.711
6. obsessive	.367**	.332**	.368**	.311**	.354**	1.00		.532	.801
7. re-participation intention	.354**	.315**	.301**	.333**	.271**	.254**	1.00	.512	.742

**p<.01

3.2 연구모형의 적합도

이 연구의 연구모형은 3개의 척도(스포츠자신감, 열정, 재 참여의도)의 7개의 측정변수(능력입증, 사회적지지, 코치 지도력, 신체적/정신적 준비, 강박열정, 조화열정, 재 참여의도)으로 구성되었다.

이 연구의 인과관계 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검증을 위해서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Table 7>과 같다. <Table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CFI=.921, TLI=.913, RMSEA=.064로 나타났다. 이는 모형의 적합도 기준이 CFI와 TLI는 .90 이상일 때, RMSEA는 .08 이하 이면 좋은 모델로 평가되는 것으로 비추어 볼 때, 이 연구의 연구모형은 전반적으로 수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7> The goodness of fit of SEM

Goodness of fit	χ^2	df	χ^2/df	CFI	TLI	RMSEA
measurement model	107.652	23	4.680	.918	.923	.051

3.3 교양스키수업에 참가하는 대학생의 스포츠자신감과 운동열정 및 재 참여의도의 관계에 대한 가설검증

교양스키수업에 참가하는 대학생의 스포츠자신감과 운동열정 및 재 참여의도에 대한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연구문제에서 설정한 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

의 <Table 8>과 같다.

첫째, 교양스키수업에 참가하는 대학생의 스포츠자신감은 운동열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r=.421$, $t=7.124$,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참가자들이 스키수업에 대한 자신감을 높게 인식할수록 운동열정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교양스키수업에 참가하는 대학생의 스포츠자신감은 재 참여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r=.328$, $t=3.287$,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참가자들이 스키수업에 대한 자신감을 높게 인식할수록 재 참여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교양스키수업에 참가하는 대학생의 운동열정은 재 참여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r=.536$, $t=9.547$,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스키수업에 대한 열정이 높을수록 재 참여의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교양스키수업에 참가하는 대학생의 스포츠자신감과 운동열정 및 재 참여의도는 인과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은 각각의 잠재변수들에 대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변수들 중 교양스키수업 참가하는 대학생의 스포츠자신감은 재 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효과($\beta=.287$) 뿐만 아니라 간접효과($\beta=.257$)까지 작용하고 있어 총 효과는 $\beta=.544$ 가 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 의하면, 교양스키수업에 참가하는 대학생의 운동열정은 두 변인 사이

<Table 8> Hypothesis testing

route	Estimate	S.E	C.R(t)	sig	effect		
					total effect	direct	indirect
sport confidence → exercise passion	.421	.050	7.124	.001	.421	.421	-
sport confidence → re-participation intention	.328	.087	3.287	.001	.553	.328	.225
exercise passion → re-participation intention	.536	.069	9.547	.001	.536	.536	-

에서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 연구모형간에는 인과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4. 논의

이 연구는 교양스키수업에 참가하는 대학생들의 스포츠 자신감과 운동열정 및 재 참여의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구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교양스키수업에 참가하는 대학생들이 스포츠 자신감을 어떻게 인식 하는가에 따라 운동 열정과 재 참여의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구명하기 위해서 설정한 연구가설을 검증한 결과를 중심으로 이들 변인 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심층적으로 하고자 한다.

첫째, 교양스키수업에 참가하는 대학생들이 느끼는 스포츠 자신감과 운동열정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참가자들이 스포츠 자신감을 높게 인식할수록 스키수업에 대한 열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스포츠 자신감과 운동열정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선행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김종길의 연구에서 대학 태권도 선수들의 운동열정이 자기관리와 스포츠자신감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와는 변인간의 인과관계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결과여서 부분적으로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30].

특히 스키 종목의 특성상 스포츠 자신감은 매우 중요한 변인이다. 설원에서 양발에 스키를 장착하여 활강을 하는 스포츠이며, 활강 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 및 무서움을 느끼게 된다. 또한 대부분의 강습이 단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인의 실력이 남들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면 자신감 저하로 나타나게 되며, 이는 곧 중도포기 현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스포츠 자신감이 높아지게 되면 운동에 대한 열정도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는 다양한 지도법을 통하여 처음 스키를 접하는 참가자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게 된다면 대학생들이 평생스포츠로서 스키를 즐길 수 있는 흥미와 노력을 고취시킬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는 윤홍환, 이동현이 제시한 대학생 스키, 스노보드 수업을 통하여 재미를 느끼게 되면 운동을 지속하고 몰입하게 된다는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31]. 따

라서 수업이지만 학생들에게 즐거움을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교양스키수업에 참가하는 대학생들이 느끼는 스포츠 자신감과 재 참여의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참가자들이 스포츠 자신감을 높게 인식할수록 스키수업에 재 참여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생활체육 참가자의 스포츠자신감과 성취목표지향성 및 운동지속수행능력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한 최용민, 김재일, 서석윤, Greg의 연구[32]와 유원용[33]의 결과에 의하면 생활체육참가자들의 스포츠자신감이 운동지속수행능력의 경향성, 가능성, 강화성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신감이 스포츠활동을 지속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하고 있다. 김승영, 한영일의 연구결과[34]에서도 중년 생활체육 참여 동호인들의 스포츠 자신감 하위 변인인 신체정신적준비 요인이 운동지속수행능력의 가능성, 강화성, 경향성에, 스포츠자신감의 능력인증 요인이 경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주고 있다.

이는 운동 참여자가 스스로 목표에 집중하고 또한 운동시 집중이 잘될 때 특별한 보상이 없더라도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35]. 이러한 결과는 스포츠자신감이 높아질수록 운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운동에 지속적이며 재참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스포츠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대학교 교양스키수업은 지도자가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고 학생과 대하는지에 따라서 상이한 결과의 차이가 나타난다. 따라서 교양스키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이 만족도가 큰 수업이 되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의 효율적인 교수법에 관심을 갖고, 학생들에게 더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양스키수업 참가자들의 운동열정과 재 참여의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참가자들의 운동열정이 높아지면, 재 참여의도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중들의 스포츠 활동 참여의 지속성과 탈락을 예측하는 심리적 변수를 기 위한 결정요인 중 열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동계스포츠 종목의 특성상 겨울철에만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본

인의 열정이 부족하게 되면 중도탈락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히 생기기 때문에 종목 특성상 매우 중요한 변인이다. 본 연구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이 좋아하는 활동에 대해 스스로의 의지가 발생하는 조화열정과 자신을 통제하려는 내적인 압박 때문에 활동에 참여하는 강박열정 모두 재참여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연구결과를 통해 재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열정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박진기와 박상윤은 헬스클럽 이용자의 운동열정이 운동만족과 운동지속의사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어, 재 참여의도에 관한 운동열정 변인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있다[36]. 또한 같은 맥락에서 구대웅, 이근모, 김준은 수영 참가자의 열정 및 정서가 자기관리 및 운동지속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결과와 그 맥을 같이 한다[37]. 즉 교양스키수업 참가자들에게 있어서 운동열정은 동계스포츠 종목 참가에 대한 재 참여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다른 한편으로 어떠한 열정수준이 동계스포츠 참가자들의 재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가 후속연구로서 이루어질 필요성이 제기된다.

넷째, 교양스키수업에 참가하는 대학생들이 느끼는 스포츠자신감과 운동열정 및 재 참여의도의 인과모형을 검증한 결과 스포츠자신감은 참가자들의 스키수업에 대한 운동열정 및 재 참여의도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들 간에 인과관계는 스포츠자신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과라고 지적할 수 있다.

즉, 스키와 같은 동계스포츠 종목은 신체적인 움직임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으로 두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스포츠이다. 특히 운동열정과 재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외적 요인들 중 스포츠자신감은 참가자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변인임을 인지해, 현장의 동계스포츠 지도자들이 학생 및 강습생의 스키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38]. 이러한 결과는 운동선수들의 운동민심이 열정을 높이고 이러한 열정의 상승은 수행전략에 영향을 주어 감정조절, 목표조절, 컨디션 조절 등을 제고시킴으로써 효율적으로 운동을 수행 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의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해주고 있다

[39,40,41].

이와 같은 인과관계 모형은 교양스키수업에 참가하는 학생들에게 열정이 생김으로서 다시 참가하게 되는 생활 스포츠의 선순환적 모델을 제시한다. 앞으로 있을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에 국민적 관심이 더욱 고조되기 위해서는 젊은 대학생들 중심으로 다양한 연령대의 국민들까지 포함할 수 있는 동계스포츠 활성화 전략이 정부 및 협회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교양스키수업에 참가하는 대학생들의 스포츠자신감과 운동열정 및 재 참여의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구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분석결과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교양스키수업에 참가하는 대학생들의 스포츠자신감은 참가자들의 운동열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둘째, 교양스키수업에 참가하는 대학생들의 스포츠자신감은 참가자들의 재 참여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셋째, 교양스키수업에 참가하는 대학생들의 운동열정은 재 참여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넷째, 교양스키수업에 참가하는 대학생들의 스포츠자신감과 운동열정 및 재 참여의도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 스포츠자신감은 참가자들의 운동열정 및 재 참여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참가자들의 운동열정은 스포츠자신감과 재 참여의도 사이에서 중요한 변인으로서 역할을 한다.

또한 이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과 추후 활발한 후속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후속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와의 면담과 참여관찰을 통해 수업에 참가하였던 대학생들이 어떠한 이유로 재 참여하게 되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재참여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개발된 설문지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제한된 요인을 사용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요인들을 이용해 자신감, 열정, 재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설명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실제 교양체육수업의 효과 및 평생 체육으로 확대시키기 위해서 교양체육수업을 수강하는 학생과 수강하지 않는 학생들

의 비교연구가 수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향후 연구를 통해 구축된 다양한 지식들을 기반으로 교양 스포츠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Ministry of Culture, Sport and Tourism, "2014 Korean national Survey on leisure activity." Jinhan M & B, 2015.
- [2] Jong Young Lee, "The influence of the participation in leisure sport activities on the mitigation of human alienation in the contemporary society."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Sport*, Vol. 15, No. 2, pp. 349-373, 2002.
- [3] Jong Young Lee, Seong-gu Nam, "The relationship between types of participation in leisure sports and their abilities of leisure activity of colleges students."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Vol. 41, No. 1, pp. 105-114, 2002.
- [4] Suk Hwan Choi, Beon Joon Kim, "The relationship among health concern well-being oriented and psychological well-being for college students attended physical education." *Korean Journal of Sports Science*, Vol. 22, No. 5, pp. 211-220, 2013.
- [5] Bum-jang Lim, "Leisure and quality of life." *Newsletter Korean Society for the Sociology of Sport*, Vol. 8, pp. 1-8, 1995.
- [6] Seong-Gyu Lee, "Influence of the participation motivation on flow and exercise adherence intention among the university ski and snowboard class participants." *Graduate school of Sungkyunkwan University*, 2010.
- [7] Sang Jun Han, Sang Heang Lee, "A study on structural relations among the social support, self-esteem, and college life adjustment of college students participating in convergence leisure sports activiti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8, pp. 515-523, 2015.
- [8] Ji Young Lee, Myoung Su Kim, Shin Ho Lee, "Effects of fitness management class for wellness convergence -based on fitness, obese indices, metabolic syndrome factor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5, pp. 329-336, 2015.
- [9] Ho Jin Chung, Ik Young Chang, Jong young Lee, "The first winter season at a ski-club: An ethnographic study on the socialization process of novice skiers."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Sport*, Vol. 18, No. 2, pp. 211-228, 2005.
- [10] Yong-uk Kim, "Effects of ski resort attributes on customer satisfaction, resort image and customer loyalty." *Graduate school of Hanyang University*, 2015.
- [11] K. Kingston, A. Lane, O. Thomas, "A temporal examination of elite performers sources of sport-confidence." *The Sport Psychologist*, Vol. 18, pp. 313-332, 2010.
- [12] R. S. Vealey, "Conceptualization of sport-confidence and competitive orientation: Preliminary investigation and instrument development." *Journal of Sport Psychology*, Vol. 8, pp. 221-246, 1986.
- [13] Sung-ok Kim, "Sport psychology." Seoul: Taeguen Publication, 1998.
- [14] C. Peterson, M. E. Seligman, "Character strengths and virtues: A handbook and classification." NY: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 [15] R. J. Vallerand, C. M. Blanchard, G. A. Mageau, R. Koestner, C. F. Ratelle, M. Leonard, M. Gagne, J. Marsolais, "Les passion de l'ame: On obsessive and harmonious pa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85, No. 4, pp. 756-767, 2003.
- [16] R. J. Vallerand, "On passion for life activities: The dualistic model of passion."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42, pp. 97-193, 2010.
- [17] Jin Yoo, Kon Nym Chung, "Analysis of the dualistic passion model in dance." *Korean Journal of Sport Psychology*, Vol. 19, No. 1, pp. 163-175, 2008.
- [18] Man Soo Yun, "Analysis on determinative factors of the exercise adherence of female aged using the social welfare life sports facilities." *Graduate School of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2008.
- [19] Heung Han Yoon, Seung Chul Kim, " The

- influence of the participation motivation of sport flow and exercise adherence among the studnets taking college physical activity classes."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Vol. 49, No. 6, pp. 291-301, 2010.
- [20] Jin Sung Park, Han Shik Moon, "Influence of participation motivation of ski-class on students' flow."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Vol. 32, No. 1, pp. 35-46, 2008.
- [21] Dong-whan Kim, Do-hyun Ro, "Motivation of the participants acording to the liberal ski goal orientation, class satisfaction, impact on exercise adherence." *The Korean Journal of Sports Sciences*, Vol 21, No. 2, pp. 758-794, 2012.
- [22] Myoung-soo Park, Yang-joo Lee, "The relationship among sensation seeking, lecture satisfaction, intention to continuance and recommendation intention of the college culture ski participa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te Study of Physical Education*, Vol. 19, No. 2, pp. 117-129, 2014.
- [23] Seung-Haeng Lee, " Research of relationship between sports' value and satisfaction of students attending liberal art of ski." Graduate school of University of Suwon, 2006.
- [24] Woong Jae Choi, " A study about satisfaction factor of cultural physical education in university: The core of ski and snowboard." *Korean Journal of School Physical Education*, Vol. 16, No. 1, pp. 23-34, 2006
- [25] Won-bae Kim, "Verification on the validity of sources of sport-confidence questionnaire." *Korean Journal of Sport Psychology*, Vol. 10, No. 2, pp. 107-122, 1999.
- [26] Vochun Cho, " The affect of SCUBA diving resorts' service quality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on customers' satisfaction and intention of re-participate." Graduate School of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2011.
- [27] Hee-Bae Park, "Relationship among fun factor, participation satisfaction and intention to re-participate in university students in marine sports courses." Graduate school of Dankook university, 2010.
- [28] Gye-Su Kim, *Structure equation model*. Seoul: Suk Jeong Publication, 2003.
- [29] R. B. Kline,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Guilford Press, 2005.
- [30] Jong Kil Kim, "The effect of university Taekwondo players' exercise passion on self-management and sport confidence." *Korean Journal of Sports Science*, Vol. 24, No. 3, pp. 281-292, 2015.
- [31] Heung Han Yoon, Dong Hyun Lee, "Relationships among the exercise adherence, flow, and fun factors of college level ski-snowboard physical activity classes."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Vol. 48, pp. 517-531, 2012.
- [32] Young Min Choi, Jae Il Seo, Greg B. C. Shaw, "Relationship among sports confidence, goal orientation, and continued sports performance of everyday sports participants." *Korean Journal of Sports Science*, Vol. 24, No. 1, pp. 219-233, 2015.
- [33] Won Yong Ryu, "The relationship between shooting athletes'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self-management and exercise performanc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2, pp. 361-369, 2015.
- [34] Seung Young Kim, Young Il Han, "An analysis on the relationship of middle aged sports-for-all club member's sports confidence on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nd exercise adherence." *Korean Journal of Sports Science*, Vol. 24, No. 3, pp. 519-534, 2015.
- [35] Jong-Sik Lim, Chun-Ho Yang, "Relationship between Sports Confidence and Class Satisfaction according to Adolescents' Participation in Marine Spor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4, pp. 169-176, 2015.
- [36] Jin Kee Park, Sang Yoon Park, "Impact of health club users' exercise passion on exercise satisfaction and intention to exercise adherence." *Korean Journal of Sports Science*, Vol. 23, No. 1, pp. 755-766, 2014.
- [37] Dae Woong Koo, Keun Mo Lee, Jun Kim, "The effect of swimming participant's passion and emotion on self management and exercise sdherenc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Vol. 52, No. 1, pp.

87-100, 2013.

- [38] Youngeun Kim, Hyun-Jung Lee, "A study on undergraduate students' self-growth experiences in a counseling skills training cours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5, pp. 315-328, 2015.
- [39] R J. Vallerand, "A hierarchical model of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 in sport and exercise." In G. C. Roverts(Ed), Advances in motivation in Sport and Exercise, 263-319, 2003.
- [40] Kyeung-Ae Jang, Hee-Su Lee , "Factors Affecting the Self Esteem of a Convergence Dental Hygienist",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4, pp. 177-186, 2015.
- [41] Yoon seon-o, kim woo ho, "Convergent research on how golf affects the subjective happiness of mothers who have children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4, pp. 47-54, 2015.

장 익 영(Chang, Ik Young)



- 2000년 2월 :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과(체육학사)
- 2009년 11월 : Lakehead University Kinesiology(이학석사)
- 2014년 5월 : Otago Univeristy 체육학과 (철학박사)
- 2014년 5월 ~ 현재 : 한국체육대학교 강사

- 관심분야 : 스포츠사회학
- E-Mail : ikyoungchang@gmail.com

안 찬 우(Ahn, Chan Woo)



- 2004년 2월 :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과(체육학사)
- 2006년 2월 : 한국체육대학교 체육학과(체육석사)
- 2011년 2월 : 한국체육대학교 체육학과(이학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대구한의대학교 교수

- 관심분야 : 스포츠사회학
- E-Mail : acw@dhu.ac.kr